

올바른 감정의 인식에 대하여

-- 브렌타노의 기술 심리학 --

박 찬 영

— 목 차 —

들어가는 말

1. 의존적 차별들 (Abhängige Differenzen)
2. 내재적 차별들 (Innere Differenzen)
3. 판단과 감정의 類比
4. 가치 판단과 올바른 감정
 - 1) 가치 판단과 순수 인지적 판단
 - 2) 가치 판단의 필증성
 - (1) 概念 풀이 (Begriffslösung)
 - (2) 推論 풀이 (Schlußlösung)
 - (3) 感情 풀이 (Emotionslösung)
 - (4) 카트코프의 극단적 개념 풀이
 - (5) 네 가지 해석의 비교
5. 브렌타노 가치론의 일반적인 특성들

들어가는 말

프란츠 클레멘스 호노라투스 헤르만 브렌타노(1838-1917)의 철학은 그 엄청난 사실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인정받고 있다. 브렌타노 철학의 제값 찾기에 유의하는 슈테그릴러는 브렌타노 철학을 현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그 근거로서 다음의 사실을 내세운다.

“브렌타노에 있어 현대 철학의 매우 다양한 여러 흐름들의 실마리들이 함께 뭉쳐 있다. 첫째로 그가 없었다면 현상학적 철학 전체는 생각할 수 없다. ... 둘째로 브렌타노는 존재론과 형이상학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특히 그

의 범주 분석을 통해 ... 현대의 존재론에 기준을 제시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째로 브렌타노적인 방법은 많은 점에 있어 - 무엇보다 그에 있어 철학 함의 출발점을 이루는 언어 논리적 연구들 때문에 - 오늘날의 경험주의적 철학에 있어서의, 특히 영미 분석 철학에 있어서의 방식과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¹⁾

그의 제자인 훗설이 중언하듯이 브렌타노는 “순수히 문제(事象)에 몰두함”과 “문제를 전개하는 발작적인 힘”에 있어 탁월하며 “소크라테스적 산파술의 대가”인데 그는 항상 “어떤 커다란 소명을 받았다는 의식”²⁾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소명 의식은 우선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철학이 인류를 교육함에 있어 마땅히 가져야 할, 철학의 높은 사명”³⁾에 대한 의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소명 의식은 “철학을 뿌리에서부터 개혁하는 일”⁴⁾에 얹혀 있다. 그는 (경험에 입각한) ‘학문적인 철학’과 ‘선입견의 철학’을 갈라 놓으면서⁵⁾ 새로운 학문적인 철학의 무선입견성을 한껏 강조한다. 즉 우리는 결코 “선조들의 판단에 의해 노예처럼 규정되어서는”⁶⁾ 안 된다. 브렌타노는 이러한 학문적 철학을 위한 바탕 학문을 하나의 새로운 심리학에서, 즉 ‘經驗的 立場에 선 記述 心理學 (deskriptive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에서 엿보았다.

여기서 經驗的 立場은 한편으로 심리학의 根據(Grundlage)로서 기능하는 明證的인 내부 지각의 事實性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문의 課題(Aufgabe)로서 사실적인 것의 法則化(Axiomatisierung)를 노리고 있다. 법칙화의 첫 걸음은 分析的 과정으로 우리의 심리 현상을 判明(deutlich)하게 記述하는 일인데, 바로 이러한 기술이라는 방식으로부터 ‘기술 심리학’, ‘기술 현상학’이라는 이름이 유래한다.

기술 심리학은 “마음의 해부학”⁷⁾으로서 “인간 의식의 제요소와 요소들의 결합 방식을 (가능한한) 남김없이 규정하려 하는”⁸⁾ 순수 심리학이다. 브렌타노에 있어 이러한 순수 심리학은 발생 심리학과 구별된다. 發生 心理學은 마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이론으로서 개별 현

¹⁾ Stegmüller, W., *Hauptströmungen der Gegenwartsphilosophie*. Bd. I. Stuttgart 1978. 1쪽 이하.

²⁾ Husserl, E., *Erinnerungen an Franz Brentano*. In: Kraus, O., *Franz Brentano*. München 1919. Anhang II. 154쪽 이하.

³⁾ Stumpf, C., *Erinnerungen an Franz Brentano*. In: Kraus, O., 앞의 책, Anhang I. 116쪽 이하.

⁴⁾ Brentano, F., *Über die Zukunft der Philosophie* (앞으로 Z.d.Ph.로 줄임). Hrsg. v. O. Kraus, Hamburg 1958. 12쪽.

⁵⁾ Brentano, F., *Versuch über die Erkenntnis* (앞으로 V.ü.d.E.로 줄임). Hrsg. v. A. Kastil, Hamburg 1970, erste Abteilung, Teil I 참조. 제일장은 “선입견을 타도하자!”라고 제목을 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되고 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정신 안에서 모든 맹목적인 아프리 오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라는 현대에 대한 경고어”(같은 책, 1쪽).

⁶⁾ Z.d.Ph., 12쪽.

⁷⁾ Brentano, F., *Deskriptive Psychologie* (앞으로 D.P.로 줄임). Hrsg. v. R. M. Chisholm u. W. Baumgartner, Hamburg 1982. 128쪽.

⁸⁾ D.P., 1쪽.

상들이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생리 심리적 조건들을 연구한다.⁹⁾ 물론 발생 심리학이 전적으로 생리 심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리적 과정이 심리적 과정의 변화를 규정하는 힘을 가지므로 발생 심리학은 주로 생리학적 심리학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또한 발생 심리학이 개연적인 명제만을 다루는데 반하여 기술 심리학/ 심리 인지학(Psychognosie)은 엄밀한 문제의 수립을 요구하는 엄밀한 학문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기술 심리학의 인식론적 특수 위상에, 즉 내부 지각의 명증성에 놓여 있다.

기술 심리학과 발생 심리학 사이에 상호 보완성이 지적될 수 있지만 전자는 후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에게, 특히 형이상학(신학과 우주론)과 윤리학에 불가결한 바탕을 제공한다.¹⁰⁾ 왜냐하면 모든 학문들은 궁극에 있어 마음의 세계에 속하는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크게 보아 프란츠 브렌타노의 記述心理學을 다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기술 심리학 일반이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인 感情領域에 관한 그의 기술 심리학적 연구만이 주제화된다. 이러한 주제화 자체도 어느 한 구심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점은 우리의 탁월한 내부 경험 중 하나인 '價值經驗'이라고 불릴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전체로서 브렌타노의 價値論에 대한 序說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브렌타노 철학의 어떤 설익은 비판이 아닌 그 충실한 이해와 설명이라는 작지만 탄탄한 목적을 가진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브렌타노는 그의 철학적 사유의 삶에 있어 이른바 하나의 전회를 겪어내며 이 전회의 산물인 레이스무스(Reismus; 것-주의, 物주의, 개별 존재자주의)는 그의 후기 사상으로 통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주로 브렌타노 후기 철학이라는 틀 안에서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진다:

1. 의존적 차별들. 여기서 감정 성립의 여러 일반적 기반지음 연관(Fundierungs-zusammenhänge, 바탕놓음 연관)이 다루어진다.
2. 내재적 차별들. 감정의 많은 본래적 방식들이 여기서 기술된다.
3. 두번째와 세번째 의식 연관 방식 사이의 類比. 이 유비 관계의 분석을 통해 가치론적으로 중요한 감정의 내재적 차별들이 조명된다.
4. 가치 판단과 율바른 감정.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안으로 (내재적) 율바름(innere

⁹⁾ D.P., 3쪽 이하 참조. 딜타이의 기술 심리학과 브렌타노 마티(Marty)의 기술 심리학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딜타이의 기술 심리학에서는 발달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특성론적인 유형화하는 측면은 브렌타노와 마티에 있어서는 발생 심리학적 측면으로 간주된다. Marek, J. Ch. & Smith, B., Einleitung zu Anton Martys "Elemente der Deskriptiven Psychologie". Conceptus XXI, 1987, No.53-54. 40쪽 이하 참조.

¹⁰⁾ D.P., 128쪽, 157쪽 이하 참조. Brentano, F., Meine letzte Wünsche für Österreich. Stuttgart 1895. 34쪽에서 브렌타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심리 인지학적, 박찬영 풀이) 수행은 라이프니츠와 그에 앞선 데카르트가 생각하였던 보편 수학(characteristica universalis)을 위한 바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Richtigkeit)'의 바탕이다.

5. 브렌타노 가치론의 일반적 특성들.

1. 의존적 차별들 (Abhängige Differenzen)

브렌타노에 따르면 물리적 현상과 구별되는 심리적 현상은 그 明證性(Evidenz)과 志向的聯關係(intentionale Beziehung)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지향적 연관 방식을 1)表象(Vorstellung), 2)判斷(Urteil), 3)感情/情緒/情動(Gemütsbewegung)의 세 가지 류로 나눈다.¹¹⁾ 이러한 분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보통 통일적으로 다루어지는 知를 브렌타노가 표상과 판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나뉘어져 다루어진 情(Fühlen)과 意(Wollen)를 의식의 세번째 류에 한데 묶는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orexis가 그 선구자임) 이 두번째 측면을 살펴 보자면, 그는 정과 의를 한데 묶는 근거로서 느낌으로부터 의욕에로의 점차적이고 계속적인 移行을 내세운다. 브렌타노 자신이 말하는 이러한 이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슬픔 (Traurigkeit) - 결여된 재화에 대한 그리움 (Sehnsucht) - 그것을 얻었으면 하는 희망 (Hoffnung) - 그것을 마련하고자 원함 (Verlangen) -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 (Mut) - 행위에로의 의지의 결단 (Willensentschluß)”¹²⁾. 따라서 이러한 의식 연관의 제삼류에 의해 규정되는 의식 현상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냥 단순한 마음에 듬과 마음에 들지 않음,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주 복잡한 현상인 목적과 수단의 선택등이 모두 이 제삼류에 속한다.¹³⁾

감정/정서/情動(Gemütsbewegungen)의 의존적 차별을 우리는 감정/정서에 선행하는 심리적 연관 방식들이, 즉 표상과 판단이 감정/정서을 어떤 식으로 정초하며 또 감정/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의존적’임은 따라서 ‘선행하는 심리적 연관에 의존적’임을 뜻한다. 이러한 표현은 브렌타노의 메레올로기(Mereologie, 부분-전체-이론)적 범주론에 근거한다. 이 범주론에 따르면 심리적 전체로서의 한 개별자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 어떤 집합적 전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양태의 전체로, 환언하면 주체

¹¹⁾ 이렇게 의식 방식을 셋으로 나누는 일은 아우구스티누스-데카르트계열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Brentano, F., *Vom Ursprung sittlicher Erkenntnis* (앞으로 U.s.E.로 줄임). Hrsg. v. A. Kastil, Hamburg 1970. 17쪽, 54쪽 이하 참조. Brentano, F., *Wahrheit und Evidenz* (앞으로 W.u.E.로 줄임). Hrsg. v. A. Kastil, Hamburg 1958. 33쪽 이하 참조.) 데카르트는 의식을 idea, iudicia, voluntas로, Augustinus는 memoria, intelligentia, voluntas (delectatio, amor)로 심분한다. (Kraus, O., *Die Werttheorien*. Brünn 1937. 45쪽 참조)

¹²⁾ Brentano, F.,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B.II.(앞으로 P.II로 줄임) Hrsg. v. O.Kraus, Hamburg 1976. 84쪽.

¹³⁾ U.s.E., 18쪽 참조.

(Subjekt)를 자기 안에 품는 우유적 전체, 양태적 전체(Akzidentell-/Modalbefassendes)로 나타난다. 이때 주체는 우유자/양태로부터 실재적으로 분리 가능하나 그 역은 불가능하다. 주체는 또 다른 주체를 자기 안에 품는 우유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주체를 품지 못하는 마지막 주체를 브렌타노는 실체(Substanz)라 부른다. 이러한 양태적으로 포괄하는 자와 양태적으로 포괄된 자 사이의 관계를 브렌타노는 범주 관계라고 부르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존적’이라는 표현은 특히 바탕을 주는 작용은 바탕을 받는 작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 있으나 그 逆은 불가능하다는 일면적 분리 가능성(einseitige Ablösbarkeit)에 근거한다.¹⁴⁾

표상 영역에 있어서의 차이들과 감정 영역에 있어서의 차이들의 상옹에 관해서는 우리는 우선 다음의 필연적인 바탕놓음 연관을 고려해야한다. 즉 감정/정서는 표상을 반드시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표상은 기본적인 심리 현상으로서 모든 다른 심리 현상에 대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표상 차별들은 - 그것이 대상 차별이든 양태 차별이든 - 감정/정서의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대상 차별을 낳는 식으로 감정/정서에 영향을 준다.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단지 시간 양태에 관한 경우만 언급하기로 한다. 예컨데 “과거의 것을 향한 후회, 현재의 감각을 향한 고통, 앞으로 올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¹⁵⁾은 바탕에 놓여 있는 표상에 있어서의 (그리고 이로써 또한 판단에 있어서의) 시간 양태의 관점 아래서 서로 구별된다.

14)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학적 방법인 記述은 범주적 관계의 기술로 나타나며 範疇的 意識分析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한다. Mereologie는 여기서 상론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도식적인 조감만 제공하겠다. (D.P. 12쪽 이하 참조)

- 1. wirklich ablösbare Teile
 - 1) beiderseitig ablösbare Teile
(z.B. Sehen und Hören)
 - 2) einseitig ablösbare Teile
(z.B. Vorstellen und Begehren)
- 2. distinktionelle Teile
 - 1) im eigentlichen Sinne
 - a) sich durchwohnende Teile
 - b) logische Teile
 - c) Teile des intentionalen Korrelatenpaars
 - d) Teile der psychischen Diplosenenergie
 - 2) im modifizierten Sinne
 - (z.B. ein Ding A als Teil des A Denkens)
 - (z.B. ein Ding A als Teil des gedachten A)

15) U.s.E., 147쪽. D.P., 151쪽 참조.

판단의 차별들도 여러 방식으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 세 가지 심리적 연관 방식의 바탕놓음 연관이 가장 밝게 드러난다. 우선 표상이 판단에게 대상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판단이 표상된 대상을 다룬다. 표상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내려진 바로 이 대상에 감정이 관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판단에 의한 바탕놓여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표상만으로 바탕놓여진 감정들도 많다. 美的 感情이 그 예이다. “*pulchrae sunt quae visae placent* (그것의 표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감정이 판단에 의해 바탕놓여지는 몇몇 중요한 경우를 언급해 보자.¹⁶⁾ 1) 개연성이 적은 행운은 기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앞날의 행운이 높은 혹은 낮은 개연성을 가지는가는 판단을 통해 확정 가능하다. 2) 이차적으로 좋은 것의 확정에 있어서 판단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자체에 있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어떤 다른 좋은 것의 표시 (Zeichen)로 혹은 그것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그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 3) 심지어 가장 단순한 감각적 폐감조차 감각 작용 자체의 명증적 인식에 근거해서만 일어난다. 4) 바탕에 놓여있는 판단이 참이나 거짓이나에 따라 우리는 참된 기쁨 혹은 거짓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¹⁷⁾ 5) 의욕함과 선택함에 있어 바탕에 놓여 있는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의욕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단을 확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의욕의 대상이 그의 욕구의 결과를 통해 그 자신의 힘으로 현실화(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판단을.

2. 내재적 차별들 (Innere Differenzen)

위에서 감정의 의존적 차별들을 살펴 보았으니 이제 마당을 바꾸어 그 특징적인 내재적 차별들¹⁸⁾에 주목해 보자. 브렌타노에 따르면 감정/정서는 다중적인 시점 아래서 분류되어질 수 있다.

1) 감정은 우선 보기에 긍정적으로, 즉 좋아함/사랑함(긍정적 관심가짐)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즉 싫어함/미워함(부정적 관심가짐)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여기서 “志向的 聯關의 對立 (Gegensatz der intentionalen Beziehungen)”¹⁹⁾ 을 말할 수 있다.

2) 단순한 감정 (단순한 좋아함과 싫어함)과 관계적인 감정 (選好/더 좋아함과 더 싫어함)은 가장 기본적인 감정적 현상이다. 관계적인 감정은 브렌타노에 있어 단순한 감정으로 환

¹⁶⁾ U.S.E., 147쪽 이하 참조. Brentano, F., *Grundlegung und Aufbau der Ethik* (앞으로 G.u.A.d.E.로 줄임). Hrsg. v. F. Mayer-Hillebrand, Hamburg 1978. 151쪽 이하 참조.

¹⁷⁾ G.u.A.d.E., 187쪽 참조.

¹⁸⁾ 이것을 브렌타노는 D.P. 150쪽에서 “exclusive Spezifizierung der Gemütsbewegungen”이라고 부른다.

¹⁹⁾ U.S.E., 18쪽.

원 불가능한, 스스로 고유한 부류를 이루는 감정작용이다.

3) 다른 연관없이 그 자체 때문에 좋아진 것, 싫어진 것과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좋아진 것, 싫어진 것 사이의 차이 또한 가장 중요한 내재적 차별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그 자신 때문에 좋아진 것을 ‘내재적으로 (intrinsicisch)’, ‘일차적으로(primär)’ 좋은 것이라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좋아진 것을 ‘유용한(nützlich)’ 혹은 ‘이차적으로(sekundär)’ 좋은 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 좋은 것에 관계하는 감정이 올바른 경우에 한한다. 싫어 하는 작용이 문제일 경우도 일면 일차적으로, 내재적으로 나쁜 것(Unwert), 타면 해로운 (schädlich) 혹은 이차적으로 나쁜 것을 말할 수 있다. 브렌타노는 ‘어떤 좋은 것의 표시/징조’를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좋아진 것 속에 넣는다.²⁰⁾

4) 그 자체에 있어 좋아진 것, 싫어진 것은 어떤 보다 큰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전체 자체는 부분을 향한 감정과는 상반되는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그 자체에 있어 좋아진 것은 전체의 부분으로서 은연중에 함께 싫어지며 역으로 그 자체에 있어 싫어진 것은 은연중에 함께 좋아진다. 이것은 관계적인 좋아함, 즉 선호의 한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²¹⁾

5) 그러나 실제적/사실적으로 좋아진 것, 좋아할 수 있는 것이 곧 바로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좋은 것, 가치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좋아함의 현실적인 나타남이 결코 곧 바로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음(Liebenswürdigkeit)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적인 인정이 결코 곧 바로 참임(Wahrheit)을 증명하지 않음과 같다.”²²⁾ 이러한 구별은 “감정의 영역에 있어 보다 높은 그리고 보다 낮은 작용”²³⁾의 구별과 연관되어 있다.

‘올바름’이란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마땅히 그려해야 하는 식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재적 차별의 이 다섯번째 시점에 있어 존재와 당위(사실적임과 올바름)의 차이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달리 우리는 모든 감정들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실제적인 감정은 마땅히 그려해야 하는 식으로 있으나 어떤 다른 실제적인 감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번째의 내재적 차별을 내재적인 올바름을 드러내 보여 주는 감정과 보여 주지 못 하는 감정 사이의 차별로 파악할 수 있다. 가치론적으로 볼 때 이 다섯번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브렌타노는 감정의 올바름의 원천을 밝혀내기 위해 판단적인 현상과 감정적 현상 사이의 類比를 가리켜 보여 준다.

이로써 우리는 감정의 다섯 갈래의 내재적 차별을 조감하였다: 1) 긍정적 - 부정적, 2) 단

20) U.s.E., 149쪽 참조.

21) U.s.E., 148쪽 참조. 세번째와 네번째 차별의 중요성은 선택 행위 및 最上의 實踐的 善과 관련시킬 때 드러난다. 전체-부분-관계와 목적-수단-관계 사이의 연관 및 친근성은 實踐的 選好의 관점에서 주제화될 수 있다.

22) U.s.E., 20쪽.

23) U.s.E., 21쪽 이하. 모든 감정이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높은 감정 작용에 있어서만 옳고 그름이 문제된다. 즉 입맛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다.

순한 - 관계적, 3) 일차적(내재적) - 이차적, 4) 고립적 - 전체적, 5) 올바르다고 특징지어진 - 올바르다고 특징지어지지 않은.²⁴⁾ 이밖에 동기지어진 감정과 동기지어지지 못한 감정 사이의 차별이 내재적 차별로서 언급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다섯번째 차별과 그리고 앞 마당에서 다루어진 의존적 차별과 깊이 얹혀있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글쓴이는 관계적인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단순한 감정의 내재적 올바름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좋아함/사랑함이라는 현상이 선호라는 현상보다 더 근본적이며 둘째 선호는 다른 논문의 주제로 간주됨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놓여있다. 또한 글쓴이는 여기서 고찰 대상을 고립적 시각에서 본, 단순하고 내재적인 감정 영역에만 국한시킨다.

3. 판단과 감정의 類比

이 類比(Analogie), 즉 關係類似性은 브렌타노의 가치론에 있어 하나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형성한다. 우선 聯關方式의 對立이라는 점을 우리는 대략(cum grano salis) 판단 영역과 감정 영역에 있어 각각 발견할 수 있다. 판단 영역에 있어서 인정과 부정, 감정 영역에 있어서 좋아함/사랑함과 싫어함/미워함이 그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분법이 양 영역 각각에서 유비적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 즉 판단이 참이나 거짓이듯이 감정도 올바르거나 그르다. 이와 같은 '올바름'과 '그름'의 이분법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그 근거를 위에서 언급된 연관 방식의 대립에서 곧 바로 찾아 보려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이분법을, 판단이 명증적이거나 맹목적인 것과 비슷하게 감정은 올바르다고 특징지어지거나 특징지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로 환원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이제 위에 제시된 '올바름'과 '그름'의 이분법의 근거에 관한 첫번째 설명 가능성에 관해

24) 앞으로 전개될 설명을 부분적으로 선취하면서 조감을 위해 여기 판단과 감정 사이의 유비와 상이를 짧게 언급하겠다. 첫번째 점, 즉 1)에 판단의 영역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별이 상용한다 (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것이 존재하므로 배중률이 감정의 영역에서 통용되는지는 의문시된다). 다섯번째 점 5)에 명증적인(밝은) 판단과 맹목적인(어두운) 판단의 차별이 상용한다. D.P.(150쪽)에 따르면 직접적인 판단과 추리의 차별이 세번째 점 3)에 유비적이다. Brentano, F., Die Abkehr vom Nichtrealen (앞으로 A.v.N.로 줄임). Hrsg. v. F. Mayer-Hillebrand, Hamburg 1977. 359쪽에서 브렌타노는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의 진정한 상용자를 판단의 영역에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명증적인 어떤 다른 판단에 근거하여 진으로 간주된 것은 그 자체에 있어 진으로 간주되지만 반면에 유용한 것으로 사랑받는 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가치 중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브렌타노는 한편으로 存在度(Seinsgrade), 존재 단계(Seinstufen)를 거부하고 (Brentano, F., Kategorienlehre (앞으로 K.로 줄임). Hrsg. v. A. Kastil, Hamburg 1985. Abt.1, Kap.III 참조) 다른 한편으로 價値度(Gütergrade)를 인정하므로 두번째 점 2)에는 판단의 영역에서 상용자를 찾아볼 수 없다. 네번째 점 4)도 판단 영역에 상용자를 갖지 못하는 듯하다.

살펴 보자. 「윤리적 인식의 원천에 관해서 (U.s.E.)」라는 저작의 한 곳에서 브렌타노는 연관 방식의 대립에서 출발하여 올바른 그리고 그른 심리적 작용의 대립으로 나아가는 듯싶다. 심지어 그는 다음과 같이 “귀결”이라는 말까지 사용한다.

“여기(지향적 연관의 대립에, 박찬영 풀이) 한 중요한 귀결이 연결된다. 우리는 첫번째 류의 심리적 작용(표상, 박찬영 풀이) 중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올바르니 그르니를 말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두번째 류에 있어 인정과 부정 두 가지의 대립된 연관 방식의 모든 경우 가운데 그 하나는 올바르고 다른 하나는 그르다. ... 그리고 물론 비슷한 일이 세번째 류에서도 나타난다. 좋 아함과 싫어함, 마음에 들판과 안드, 두 가지의 대립적 관계 방식의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는 올바르고 다른 하나는 그르다”.²⁵⁾

크라우스는 이 부분의 오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오해 가능성이 “그의 (브렌타노의, 박찬영 풀이) 제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 있어 부옹설/일치설 (Adäquationstheorie)의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시켰다”.²⁶⁾ 이 부분의 오해 가능성은 이 부분이 “마치 저 兩極性(Polarität)의 사실로 부터 그냥 벌써 <올바름>과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귀결되는 양”²⁷⁾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과 또 실제로 그렇게 이해되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고 크라우스는 주장한다. 그는 그의 비판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풀어 쓴다. “명가의 양극성으로부터 둘 중 하나가 올바르다는 것이 귀결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차별적인 것(Indifferentes)을, 즉 그것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바의 것을, 예를 들어 물리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이리하여 그는 감정 영역/가치 영역에서는 배증률에 상응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²⁹⁾

지금까지 살펴 본 첫번째 설명 가능성을 우리는 브렌타노의 前期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설명 가능성은 그의 明證立場(Evidenzstandpunkt)과 잘 어울리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일관적 이론으로 통용된다. 두번째 설명 가능성을 살펴보자.

브렌타노에 의하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als richtig charakterisiert)’이 곧 바로 ‘올

²⁵⁾ U.s.E., 19쪽. U.s.E., 59쪽 참조.

²⁶⁾ Kraus, O., 위의 책, 194쪽.

²⁷⁾ 같은 책 193쪽.

²⁸⁾ 같은 책, 196쪽 이하. G.u.A.d.E., 206쪽 이하 참조.

²⁹⁾ Kraus, O., 위의 책, 174쪽 참조. Chisholm은 ‘그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좀은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감정의 영역에서 배증률을 구제하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어떤 감정이 그를 경우는 그와 대립되는 감정이 올바를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힘으로써 그는 가치 중립적인 것과 배증률을 조화시키려 한다.(Chisholm, R.M., Brentano and intrinsic value. Cambridge 1986. 175쪽 참조)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배증률의 정확한 표현은 브렌타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그르게 싫어하는 것을 그르게 좋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그르게 좋아하는 것을 그르게 싫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Brentano, F., Die Lehre vom richtigen Urteil (앞으로 L.v.r.U로 줄임). Hrsg. v. F. Mayer-Hillebrand, Bern 1956. 175쪽)

바른(richtig)'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자의 차이는 직접적인 밝음과 간접적인 밝음 사이의 차이이다. 그런데 간접적인 밝음은 항상 직접적인 밝음을 전제하므로 올바른 감정은 항상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에 연계되어야만 한다.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은 따라서 '명증적(evident)' 판단의 상응자이고 '올바른' 감정은 '참인/眞인(wahr)' 판단의 상응자이다.³⁰⁾ 브렌타노는 진리론에 있어 明證的인 판단을 真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명증적인 판단은 항상 진이나 그 遙은 성립하지 않는다. 맹목적인/어두운(blind) 판단도 그것이 명증적인 판단에서 추론되거나 직접적으로 명증적인 판단과 명증성만 빼고 모든 다른 점에서 일치할 경우 真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올바른 감정은 그 자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지거나 혹은 스스로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지만 이 점만 빼고 모든 다른 점에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이다.

앞으로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여기서 잠깐 명증적 판단을 살펴보자. 명증적 판단에는 사실 인식과 이성의 진리 두 종류가 있다. 명증적 사실 판단은 내부 지각의 지각 판단, 즉 자기 지각(Selbstwahrnehmung)이다.³¹⁾ 여기서는 사실적/實然的 명증(assertorische Evidenz)이 문제된다. 명증적 이성 판단은 必證의 명증(apodiktische Evidenz)으로 두드러져 듣 보이는 공리(Axiom)이다. 브렌타노에 있어 실연적 판단은 특청적, 단청적으로 긍정하는 판단이고 필증적 판단은 예외없이 불가능성이라는 양상을 지닌 보편적(전칭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다. 이 필증적 부정 판단은 표상을 통해 동기지어진다. 즉 종합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적인 대상의 표상이 이 대상의 명증적인 부정을 낳는다(결과한다). 예를 들어 등근 사각형을 표상함은 등근 사각형의 명증적인 부정으로 이끈다.

판단 현상과 감정 현상의 유비(관계유사성)는 브렌타노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아주 비슷하게 (표상이 명증적 부정을 낳는 것처럼, 박찬영 풀이) 인식을 표상함으로부터 인식을 좋아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튀어 나오며 ... 고통을 표상함으로부터 고통 자체를 싫어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튀어 나온다"³²⁾. 따라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은 "필증적 판단과 유사한 특성"³³⁾을 가지는데 심리적 현상의 이 두 종류가 모두 표상을 통하여 동기지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유사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지적 될 것이다.

³⁰⁾ U.s.E., 150쪽 참조. A.v.N., 304쪽 이하 참조.

³¹⁾ 후기의 브렌타노는 내부 지각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별하여 다룬다. 좁은 의미의 내부 지각은 지각(Perzeption) 가운데 이차 의식(sekundäres Bewußtsein)인데 일차 의식 (erstes Bewußtsein)을 항상 수반하여(nebenbei, en parergo) 따르는 이 이차 의식이 가지는 명증성은 일차 의식과 이차 의식의 동일성(Identität)으로 설명된다. 넓은 의미의 내부 지각은 判明한 注意(deutliches Bemerken)라는 의미의 統覺(Apperzeption)인데 이것이 갖는 명증성은 동기지어짐(Motivierung)으로 설명된다.

³²⁾ U.s.E., 152쪽.

³³⁾ U.s.E., 152쪽. 두 심리적 연관 방식의 이러한 유사성/친근성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브렌타노 주의자들은 'evidentoid'와 'quasi-evident'라는 말을 사용한다. 글쓴이는 그 한자어 번역어인 '類似明證的'을 앞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겠다.

위에서 우리는 참인/거짓된 판단과 올바른/그른 감정의 유비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유비의 근원을 명증적 판단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유사 명증적) 감정 사이의 보다 심충적인 유비에서 찾아 보았다. 물론 여기서 문제되는 명증적 판단은 사실적으로 명증적인 판단이 아니라 필증적으로 명증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여기 유비에 있어 표상을 통한 동기지어짐이 기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필증적인 판단을 동기짓는 표상은 감각적, 구체적이 아니라 개념적, 일반적 즉 노에티쉬 noetisch하다. 이와 비슷하게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을 동기짓는 표상 역시 개념적이어야 한다.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의 대상의 概念性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실이, 즉 좋아함과 싫어함은 각각의 개체들뿐만 아니라 전체 집합을 지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그리고 일반적 개념이 바탕에 놓여 있는, 박찬영 풀이) 좋아하는 작용과 싫어하는 작용을 경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 전체 집합의 좋음 혹은 나쁨이 단 한번에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을 굽어 모으는 어떠한 귀납도 없이 (mit einem Schlag und ohne jede Induktion besonderer Fälle) 開示될 수 있어야 한다.”³⁴⁾ 예를 들어 우리의 성냄/화냄(Zorn)은 우리의 것을 훔친 그 도둑놈 개인을 향하고 우리의 죄없는 믿음을 기만한 그 배반자 개인을 향하지만 우리의 싫어함/미워함(Hassen)은 도둑 일반, 배반자 일반을 향한다.³⁵⁾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비적인 두 심리 현상에 있어 표상대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필증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통일적인(synthetisch einheitlich) 개념적 대상의 표상이 문제되고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에 있어서는 직관적으로 통일적인 (anschaulich einheitlich) 개념적 대상의 표상이 문제이다.³⁶⁾ 이러한 대상의 차이에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필증적 판단이 항상 부정적인데 반하여, 즉 모순적인 것의 부정인데 반하여,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은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좋아함일 수도 싫어함일 수도 있다. 고통을 싫어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인식

³⁴⁾ U.S.E., 82쪽. 개념에 연관된 감정이 모두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는 뜻이 이 인용 안에 함축되어 있지는 않다. 개념에 연관된 그릇된 감정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자의 경우에 그러한 감정이 “mit einem Schlag und ohne jede Induktion”으로 경험되지 않을 것이다.

³⁵⁾ U.S.E., 82쪽 참조. G.u.A.d.E., 150쪽 참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둑이나 배반자는 유용성에 연관된 예라는 점이다.

Katkov, G., Untersuchungen zur Werttheorie und Theodizee. Brünn 1937. 23쪽 이하 참조. 카트코프에 의하면 개념에 관계하는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그 개념 안에 속하는 모든 개별적 사물을 좋아함이나 싫어함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식하는 자는 좋다, 즉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다음의 판단을, “모든 인식하는 자는 (즉 그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자라고述語불일 수 있는 바의, 일반성의 정도야 어떻든간에 일반적으로 생각된 모든 사물이) 좋은 것이다”(같은 책, 27쪽)를 추론할 수 없다. 한 사물에 있어 다수의 술어 계열이 서로 얹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는, 부정하는 판단은 묵시적으로 개념의 전체 외연에 해당한다는 공리의 상응자가 감정적 영역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³⁶⁾ Kraus, O., 위의 책, 213쪽 참조.

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은 문제되는 대상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긍정적)이거나 싫어함(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명증적인 판단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한에 있어, 사실적인 판단이지만 모든 사실적인 판단이 명증적이지는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類似明證的(evidentoid, quasi-evident) 감정은 사실적인 감정이지만 모든 사실적 감정이 유사 명증적인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통일적인, 순수 인지적 개념적 대상의 필증적 존재 불가능성은 필증적 판단 안에서 밝게 드러나지만, 종합적으로 통일적인, 유사명증적 감정과 관계된, 즉 가치적 개념적 대상의 필증적 존재 불가능성은 - 이는 곧 직관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적 대상의 좋아할 만한 가치있음(Liebenswürdigkeit)을 의미하는데 -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이미 벌써 그 직관적으로 통일적인 대상의 유사 명증적인 좋아함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적인 좋아함을 통한 좋아할 만한 가치있음의 이러한 바탕놓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음 마당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마당에서의 소득으로서 좋은 것의 개념을 명확히 해보자. 브렌타노의 언어 비판에 의하면 '좋음'이라는 언어적 표현은 多義語로 나타난다. 다의어의 논리적 위험을 간파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다의어는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어느 한 언어 안에서만 문제되는 偶然的 다의어 (homonymon apotyches, 예: 언어라는 의미에서의 말과 동물의 일종인 말), 類比에 근거한 다의어 (homonymon kat' analogian, 예: 정신이 앞으로 나아 감, '앞으로 나아 감'은 원래 몸에 관한 말인데 여기서는 유비에 의해 마음/정신에 대해 사용됨)가 그 첫째와 둘째이다. 그런데 '좋음'은 '건강함'과 '참임'처럼 세번째 종류의 다의어, 즉 어떤 한 本來의 의미(개념)와의 연관을 통한 다의어(Aquivokation durch die Beziehung zu einem eigentlichen Begriff; homonymon pros hen)이다. 좋은 것의 본래적 개념은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이라는 내부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 판단과 감정의 유비를 이용하면서 브렌타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그것을 향한 좋아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좋다(gut)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것을 향한 인정/긍정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명증적일 때 그 대상을 존재한다(seiend)고 부르는 것과 유비적으로."³⁷⁾

³⁷⁾ G.u.A.d.E., 146쪽 이하. U.s.E., 19쪽 참조.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한 認定이 올바를 때 그 어떤 것을 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한 좋아함이 올바를 때 그것을 좋다고 부른다. 올바른 좋아함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것,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좋은 것이다." 브렌타노는 이에 대한 주석에서(U.s.E., 60쪽) 있음과 없음의 개념이 긍정 판단, 부정 판단의 진리 개념의 상관자(Korrelate)라고 말한다. 크라우스는 진리 일치설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이 부분을 브렌타노의 일관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있음과 없음'과 '참임과 거짓임'이 Autosemantie가 아니라 Synsemantie임을 지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한 긍정판단이 참이다"라는 말은 "그 판단의 대상이 있다(존재한다)"는 것의 언어적 상관자일 따름이다.(U.s.E., 61쪽 이하 참조)

4. 가치 판단과 올바른 감정

위에서 문제로 던져졌던 어떤 대상의 좋아할 만한 가치있음과 그 대상을 실제적, 사실적으로 좋아함 사이의 연관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가치 판단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을 순수 인지적인 필증적 판단의 구조와 비교해 보자.

우선 감정과 가치 판단 사이의 구별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 둘은 심리적 현상의 서로 다른 류에 속한다. 가치 판단이 물론 감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감정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 판단은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의 판단만을 노린다. 비록 거짓된 가치 판단이 언제나 가능하지만, 참인 가치 판단은 “A는 좋다”, “A는 나쁘다”는 형식의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인식이거나 “A를 향한 좋아함, A를 향한 싫어함이 그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브렌타노에 의하면 必證的이다. 즉 그것은 달리될 수 없음(Nichtandersseinkönnen)이라는 양태를 가진다.

1) 가치 판단과 순수 인지적 판단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치 판단이 必證의인가? 즉 불가능성이라는 양태를 가지는가? 여기서 “인식은 좋다”는 명제를 가치 판단의 예로 들고 이를 순수 인지적 필증적 판단, 예컨데 “ $2 + 1$ 은 3 이다”는 수학적 판단과 비교해 보자. 이 수학적 명제에 있어서 “ 3 이 아닌 $2 + 1$ ”이라는 표상은 이 표상 내용을 불가능성의 양태로 부정하게끔 동기짓는다. 왜냐하면 $2 + 1$ 은 3 의 분석적 정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2 + 1$ 은 3 이다”는 명제는 모순율의 성격을 띤 명제이다. 이와 달리 ‘좋지 않은 인식’이라는 표상은 수학적 명제에 있어서와 똑 같은 방식으로 그 필증적 부정을 동기짓지는 않는다. 브렌타노는 여기서 약간 비일관적인 듯싶다. 한편으로 그는 가치 판단이 필증적임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특히 가치 판단과 순수 인지적 판단을 비교하고 그 상이성을 내세울 때는, 그 주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치 판단은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이 아니라 불가능성이라는 양태를 자랑하는 아프리오리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언급된, 문제로 제기된 브렌타노의 비일관성은 그 뿐리에 있어 각각의 관찰 방식의 觀角性(Aspekthaftigkeit)에 의존하고 있다. 브렌타노식의 가치 판단은 그 정의상 순수 인지적 판단처럼 필증적이다. 다만 양자의 차이는 전자에 있어서는 후자와는 달리 또 다른 경험이, 즉 문제되는 대상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의 경험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한편으로 문제되는 것의 개념을, 예컨데 인식의 개념 혹은 기쁨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식 혹은 기쁨이 좋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즉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를 올바른 좋아함으로 경험했어야 한다”.³⁰

2) 가치 판단의 필증성

가치 판단과 순수 인지적 판단의 차이가 확립되었으니 이제 가치 판단의 필증성을 분석해보자. 브렌타노가 가치 판단의 필증 특성을 강조할 때 그는 그 근거를 문제되고 있는 감정의 類似必證的(quasi-apodiktisch)인, 類似明證的(evidentoid)인 특성에서 찾아 보고 있다. 우리의 개념적인/일반적인(noetisch) 좋아함은 항상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을 수 있고 귀납이나 개연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아함에 對한 판단, 즉 가치 판단은 필증성이라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주장이 명명백백한가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즉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의 유사 필증성이 과연 가치 판단의 필증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여기서 양자 사이에 卓越한 心理的 因果關係라는 의미의 動機關係가 존립하는지? 만일 그것이 존립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통해 필증적 판단이 동기지어지는 경우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判斷이 심리적으로 동기지어져 나타나는 - 이러한 심리적으로 동기지어짐은 그 판단의 명증을 설명할 수 있는데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전반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 1) 概念을 통한 (판단의) 동기지어짐 - 여기서는 必證의 명증이 문제된다.
- 2) 統覺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判斷을 통한 (판단의) 동기지어짐 - 여기서는 實事的/實然的 명증이 부각된다.
- 3) 感情作用 자체를 통한 (판단의) 동기지어짐.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심리적 동기지어짐에 의거하여 가치 판단의 필증성에 대한 네 가지의 해석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인 조감을 위해 네 가지 입장은 우선 비판적 주목 없이 기술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입장은 서로 비교하기로 한다.

(1) 概念 풀이 (Begriffslösung)

실제로 브렌타노는 가치 판단의 필증성을 첫번째의 동기지어짐, 즉 개념을 통한 동기지어짐의 조작을 통해 확보하려 한다. 여기서 개념이란 본래적으로는, 즉 레이스무스/개별 존재자주의에 입각하자면, 개념을 생각하는 자 자신을 의미한다.³⁸⁾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는 '개념'의 역할이 핵심적이므로 글쓴이는 이 해석을 개념 풀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 풀이에 있어서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이 개념으로 변형되어지기만 하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브렌타노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일반적 대상을 지향하는 감정에서 유래하는 개념의 媒介를 통하여 문제의 필증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매개는 多重的인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데, 이제 이 단계가 기술될 차례이다.

- 1) 인식하는 자에 대한 직관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적 표상(첫번째 개념)이 올바른 것으로

³⁸⁾ G.u.A.d.E., 150쪽 이하.

³⁹⁾ A.v.N., 186쪽 참조. U.s.E., 112쪽 참조. 개념은 그 자신의 고유한 삶을 가지지 않는다. 개념은 그 개념을 생각하는, 자립적으로 존립하는 人格體(Personen) 안에 일면적으로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특징지어진 좋아함을 동기짓는다/야기시킨다. 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인식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향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의 개념을, 즉 2) '인식하는 자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으로써 좋아하는 자'라는 두번째 개념을 얻는다. 이 두번째 개념은 종합적으로 통일적인 세번째 개념, 즉 3) '인식하는 자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으로 좋아하지 못하는 자'라는 세번째 개념의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세번째 개념 - 이것은 개념 복합으로서 여러 개념의 직간접적 방식의 (*in modo recto und in modo obliquo*) 결합이며 보통은 '좋지않은 인식 (*nicht gute Erkenntnis*)'으로 축약되어 나타나는데 - 바로 이 개념이 필증성의 양태를 띤 다음과 같은 가치 판단을 동기짓는다. 4) "인식하는 자에 감정적으로 관계하면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좋아함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s ist unmöglich, daß sich einer auf einen Erkennenden emotiv bezieht und dabei sich anders als mit einem als richtig charakterisierten Lieben verhält*)".

(2) 推論 풀이 (Schlußlösung)

필증적 가치 인식의 두번째 해석은 한 명증적 판단이 다른 판단을 체험함/경험함을 통해 동기지어진다는 일반적 해석의 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일반적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는 넓은 의미의 내부 지각이라는 뜻의 統覺, 判明한 注意로서의 통각이 갖는 명증에 관한 경우인데 이 명증은 통각이 판단(좁은 의미의 내부 지각, 二次意識)을 통해 동기지어짐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명증적인 가치 판단의 경우에는 판단을 통한 명증적 판단의 동기지어짐을 그안에 추론까지 포함시키는 식으로 아주 넓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글쓴이는 가치 판단의 필증성이 판단을 통해 동기지어진다는 것을 두번째 해석으로, 즉 추론 풀이로 통용시키고 싶은데, 이 경우 가치 판단은 두개의 전제 명제들로부터 귀결되는 결론 명제로 간주된다.

카스틸에 의하면 두 전제 중 첫번째 전제는 대상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의 경험이다. 하지만 이 경험 자체는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내부 지각으로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연적 명증을 지닌 통각 판단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두번째 전제는 필증적 성격을 지닌 분석 판단, 즉 하나의 모순율이다. 이 두 전제들로부터 필증적 특성을 지닌 결론 명제가 이끌어 진다.

예를 들어 "인식은 좋다"는 가치판단은 다음의 두 전제를 가지는 결론 명제이다.

- 1) 인식하는 자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으로 좋아하는 자가 있다.
- 2) 서로 대립하는 감정 작용 중에서 오직 하나만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3) 인식하는 자에 감정적으로 관계하면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좋아함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感情 풀이 (Emotionslösung)

세번째 해석은 가치 판단이 감정 작용을 통해 동기지어진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이 해석을 감정 풀이라 부른다. 이러한 동기지어짐이 브렌타노에 의해 명시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지만 다음 인용될 곳에서 이와 관계된 시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아주 비슷하게 (표상이 명증적 부정을 낳는 것처럼, 박찬영 풀이) 인식을 표상함으로부터 인식을 좋아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뛰어 나오며 ... 고통을 표상함으로부터 고통 자체를 싫어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뛰어 나온다. ... 이 문제되는 (當該의) 좋아함과 문제되는 싫어함이 올바르다는 認識은 위의 결과로서 (in Folge davon) 必證의인 인식이다.”⁴⁰⁾

“어떤 판단이 개념에서 도출되는 일과 비슷하게 그것(좋아함, 박찬영 풀이)이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면, 그 좋아함의 올바름이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떤 좋은 것이라고 또 한 직접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 분명하다”.⁴¹⁾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가치 판단의 필증성에 대한 세번째 해석 방식으로 유사 명증적 감정과 필증적 가치 판단 사이에 어떤 동기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통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카트코프의 극단적 개념 풀이

가치 판단의 필증성에 대한 네번째 해석은 카트코프에게서 유래한 개념 풀이의 한 극단적인 형태이다. 브렌타노의 개념 풀이와는 달리 여기서는 수학적 인식과 동일한, 가치 인식의 순수 분석적-아프리오리한 특성이 분명하게 강조된다.

브렌타노는 올바른 좋아함이라는 개념을 외적으로, 非直觀的으로 어떤 대상에 갖다 붙이는 일에는 “이 외적으로 갖다 붙여진 개념을 올바르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줄 어떤 基準도 찾아 볼 수 없다”⁴²⁾ 는 견해를 내세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되는 대상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유사 명증적 감정의 경험을 겪었어야 한다.

카트코프에 따르면 우리는 “예를 들어 인식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 자신을 지향한, 그 자체로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비공정적으로 평가하는 작용을 개념으로부터 (ex terminis)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함으로써 인식(즉 인식하는 자 자신)에게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 작용을 한번도 향하지 않고”⁴³⁾ 알아챌 수 있다. 이로써 카트코프는 필증적 가치 판단과 순수 인지적 필증적 가치 인식 사이의 구조적 동일성에 큰 비중을 둔다.

⁴⁰⁾ U.s.E., 152쪽. 밀줄 치기와 벌려 쓰기는 그 해석의 중요성 때문에 글쓴이가 한 것이다.

⁴¹⁾ U.s.E., 164쪽.

⁴²⁾ U.s.E., 154쪽.

⁴³⁾ Katkov, G., 위의 책, 20쪽. (밀줄 치기는 글쓴이가 함)

(5) 네 가지 해석의 비교

위에 기술된 가치 인식의 명증적 필증성에 관한 네 가지 해석은 두개의 동아리로 뭉쳐질 수 있다: 1) 개념 풀이 (첫번째와 네번째 해석), 2) 감정 풀이와 추론 풀이 (세번째와 두번째 해석).

두번째와 세번째 해석을 한 동아리로 묶은 이유는 이 두 해석이 가치 판단의 성립에 있어 가치 판단의 불가결한 근원으로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의 내부 지각의 타월한 중요성을 첫번째, 네번째 해석보다 훨씬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해석도 역시 우리가 개념의 근원으로서 當該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유사 명증적 감정의 내부 경험을 가진다는 점에 입각하고 있기는 하다. 이 점에 있어 네번째 해석, 즉 카트코프의 극단적 개념 풀이만이 다른 세 해석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當該의(betreffend) 대상에 연관하는 유사 명증적 감정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우리가 유사 명증적 감정 일반의 개념을 얻을 수 있는 바이면 어떤(irgendwelche) 대상을 지향하건 상관없이 그저 유사 명증적인 감정만을 필요로 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해석은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가치 판단을 내림과 동시적인 유사 명증적 감정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이 점 때문에 이 둘을 개념 풀이로부터 구별된다.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의 동시성에 대한 브렌타노의 일반론에 뿌리박고 있다. 이에 관하여 브렌타노는 「인식에 관한 시도(V.ü.d.E.)」라는 저작의 한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흉이 원인을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는 원인과 결과는 동시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존립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싶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대립하게 된다. 우리에 의해 제시된例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전제들은 그 전제들로부터 결론 명제가 우리에게 밝게 떠오르는 동안 내내 존립하고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말해서 결과가 시작할 때 비로소 원인이 존재하기 시작하며 어떤 것이 결과되는 동안 만 원인인 것이다.”⁴⁴⁾

이 인용으로부터 분명히 간취될 수 있는 점은 카스틸의 추론 풀이에 있어서의 첫째 전제, 즉 유사 명증적 감정의 내부 지각이 결론 명제, 즉 가치 판단과 동시적이다는 점이다.

세번째 해석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브렌타노의 動機論을 살펴보자. 동기지음/지어짐(Motivation)은 그에 있어 일반적으로 원인 연관(Kausal-zusammenhang) 혹은 결과 연관(Wirkungszusammenhang)으로 통용된다. 인과 관계에 있어 어떤 기만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동기 관계’를 말한다. 이로써 동기 관계는 어떤 외부 규정성이나 자연 인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規定性을 의미하며 인과적 연관 자체의 내부 지각이 이를 위해 본질적이라는 점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과지어진/동기지어진 것은 직접적으로, 결과를 낳는/ 동기짓는 것은 간접적으로 동시

⁴⁴⁾ V.ü.d.E., 38쪽.

에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원인 결과의 관계가 내적으로 지각되어야 한다.⁴⁵⁾ 만일 가치 판단의 유사 명증적인 감정을 통한 동기지어짐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일이 옳다면 유사 명증적 감정과 가치 판단의 동시성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시성과 연루된 문제를 개념 풀이는 브렌타노의 범주론의 도움으로 피하게 된다. 그의 범주론에 따르면 偶有者(Akzidentien)는 절대적 우유자와 관계적 우유자로 갈라진다. 絶對的 우유자는 모두 “附着者 Inhärenzen (性質 Eigenschaften), 즉 그 주체에 ‘달라 붙어 있는(anhafsten)’ 우유자인데 그 존속은 어떤 작동하는 원리에 의한 계속적인 새롭게 하는 결과 놓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⁴⁶⁾. 關係的 우유자는 “當賜 Erleidungen (수동적 觸發, passive Affektionen), 즉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작동하는 원리에 의해 항상 새롭게 주체가 영향받아져야만 하는 우유자”⁴⁷⁾이다. 심리적 주체의 획득된 경향성(Dispositionen)과 소유(Habitus)는,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나 도덕적 덕의 소유는, 부착자에 속하고 반면에 우리의 모든 심리적 작용 자체는 당함이다. 각각의 경험 뒤에 그 자체로서는 무의식적인, 단지 그 결과에 있어서만 스스로를 開示하는 경향성이 남게 된다.⁴⁸⁾

우리는 「윤리학의 정초와 설립(G. u. A. d. E.)」이라는 저작의 다음 한 부분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즉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 자체를 올바른 사랑으로 좋아했어야 한다.”⁴⁹⁾ 필증적 가치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유사 명증적 감정 작용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필요는 없다. 그를 위해서는 이전의 단한번의 유사 명증적 감정 작용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 - 만일 개념이 이전의 경험에서 획득된 경향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고통이 나쁜 것이다”는 가치 인식의 명증성을 위해서는 “고통을 싫어하는 자도 고통 자체도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고통을 개념적으로 표상하는 일은 - 어떤 선천적으로 태고난 개념도 없기 때문에 - 언제가 한번 우리에 의해 고통 자체가 체험되었음을 전제할 따름이다.”⁵⁰⁾

⁴⁵⁾ Brentano, F.,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Bd.III. (앞으로 P.III로 줄임) Hrsg. v. O. Kraus (neu eingeleitet und revidiert von F. Mayer-Hillebrand), Hamburg 1968. 13쪽, 135쪽 이하 참조.

⁴⁶⁾ K., 405쪽.

⁴⁷⁾ K., 405쪽.

⁴⁸⁾ K., 119쪽, 211쪽, 238쪽 이하, 250쪽, 276쪽 참조. P.III, 40쪽, 98쪽 참조.

⁴⁹⁾ G.u.A.d.E., 151쪽.

⁵⁰⁾ Kraus, O., 위의 책, 172쪽. 언뜻 보기에는 유사 명증적인 감정 작용이 필증적인 가치 판단에 어떤 식으로 관계하는지하는 문제를, 즉 개념의 매개를 통하는지 아닌지하는 문제를 크라우스가 주제적으로 다루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가치 인식의 명증을 위해서 고통을 싫어하는 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할 때 그는 개념을 통한 매개를 옹호하는 것 같다. A.v.N., 361쪽 참조.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존재한다는 말이 비본래적으로 사용될 경우, 박찬영 풀이) 나는 단지 그것이 올바르게 좋아해질 수 있음을 말할 뿐이다. 이로써 그것이 개별 존재자(Ding)로 존재하고 있음이 말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좋아하고 있음이 말해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어떤 누가 그것을 좋아하는 일이 결코 그릇되지 않음이 말해지고 있다.”

기억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명증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우리의 기억 생활이 두번째 세번째 해석에서는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나, 개념 풀이는 우리의 기억 생활을 개념의 원천으로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브렌타노는 기억의 직접적 명증성을 부인하므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가치 판단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의 동시적 경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설명된 브렌타노의 경향성에 대한 이론을 고려한다면 가치 인식이 성립할 때 우리가 유사 명증적 가치 경험을 반드시 동시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첫번째 해석과 네번째 해석을 한 동아리로 두번째와 세번째 해석을 또 다른 동아리로 묶어 비교를 계속하자. 첫번째 동아리는 모든 필증적 판단의 - 가치 판단이건 순수 인지적 판단이건 간에 - 共屬性을 두번째 동아리보다 더 분명히 강조한다. 첫번째 동아리에 따르면 모든 필증적 판단은 모순적인 부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의 사유로부터 뛰어 나온다. 이때 우리는 바탕에 놓여 있는 개념의 그때 그때 상이한 근원에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 즉 일면에 있어 유사명증적 감정 경험, 타면 순수 인지적 필증적 판단 작용이 그 근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두번째 세번째 해석은 감정과 가치 판단의 밀접한 연관 관계를 첫째 동아리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듯하다. 여기서 감정 작용의 경험이 가치 인식의 근원으로서 분명히 말해지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 지각은 이차적 의식을, 넓은 의미의 그것은 판명한 주의라는 뜻의 통각을 의미하므로 감정 작용 자체를 통해 가치 판단의 필증성이 동기지어짐이, 즉 세번째 해석이 은연중에 두번째 해석의 바탕에 놓여 있다고 말해질 수 있다.

첫번째 해석인 개념 풀이에 의하면 평가될 대상의 개념으로부터 가치 판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번 개념을 통한 동기지어짐을 경험한다. 첫째 개념을 통한 유사 명증적 감정 작용의 동기지어짐, 둘째 개념을 통한 가치 인식의 동기지어짐이 그것이다. 우리가 규정된 대상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유사 명증적 개념적 평가 작용에서 '당해의 대상 개념을 통해 동기지어진 좋아하는 자 및 싫어하는 자'의 개념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얻어진 개념을 조작하여 모순적인 개념 결합을 필증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해석, 즉 카스틸의 추론 풀이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이 성립될 때는 언제나 유사 명증적 평가 작용의 동시적인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번의 동기지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한 번은 개념을 통한 유사 명증적 감정의 동기지어짐, 다른 한 번은 판단들(전제들)을 통한 가치 인식의 동기지어짐인데 그 판단들 중의 하나는 감각 작용의 지각(Perzeption)을 통해 그 자신 동기지어진 통각(Apperzeption) 판단으로 파악될 수 있다. 두 번째 전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물음이 야기된다. 어디서 우리는 감정 영역에서의 이 형식적 모순율을 얻을 수 있는가? 전체 추론이 이른바 순환 논법의 오류(hysteron proteron)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公理的 인식은 어떤 다른 필증적 인식을 전제로 갖지 않는다는, 즉 추론되지 않는다는 브

렌타노의 공리론⁵¹⁾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추론 풀이에 있어서의 결론 명제로서의 가치 판단은 공리적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카스틸이 대부분의 가치 인식은 공리적이 아니고 그의 추론 풀이에 있어 두번째 명제만이, 즉 서로 대립된 감정 작용중 단지 하나만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이론바 분석적 인식만이 가치 공리로서 통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할 수도 있다.

아다시피 세번째 해석은 두번째 해석과 마찬가지로 유사 명증적 감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번째 해석과는 달리 위에 언급된 두번째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미 시사된 것처럼 우리는 두번째 해석을 감정 풀이를 說明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유사 명증적 감정의 내부 지각은 사실적으로 명증적인 통각 판단이다. 이 사실적으로 명증적인 통각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필증적인 가치 판단을 낳을 수 있다. 이에 관해 브렌타노는 단지 우리가 유사 명증적 감정의 결과로(in Folge von) 필증적 가치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만 말할 뿐이다.⁵²⁾ 그러나 카스틸은 事實的인 것의 必證化라는 이러한 과정은 가장 형식적인 공리의 매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써 카스틸은 대부분의 가치 인식의 공리적인 특성을 은연중에 거부하는 것 같다.

실제로 세번째 해석은 커다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과 명증적인 가치 판단을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우리는 三重의 인 認識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1)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으며, 2) 올바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으며, 3) 그 어떤 것이 ‘가치’ ('나쁜 가치')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여기서 유사 명증적 감정은 가치 인식을 위해 전제되어 있다. 이 경우 유사 명증적 감정의 내부 지각이, 즉 위의 삼중적 인식중 두번째의 인식이 세번째의 인식, 즉 가치 판단을 동기짓는 듯하다. 어떤 의미에서 동기지어짐이 여기서 말해질 수 있을까? 엄밀한 의미의 동기지어짐에서는 이미 언급된 것처럼 동기짓는 자와 동기지어진 자의 동시적인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유사 명증적 감정과 가치 판단의 이러한 동시적인 파악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고통이 나쁜 것이다”는 가치 판단의 명증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통을 가진자의 존재도 고통을 싫어하는 자의 존재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여기서는 동기짓는 자(유사 명증적 감정)와 동기지어진 자(명증적 가치 판단)의 동시적 파악이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는 개념 풀이가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다. 개념 풀이로 유사 명증적 감정과 명증적 가치 판단의 동시적 파악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으므로 첫번째 해석인 개념 풀이가 더 넓은 적용 영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개념 풀이를 브렌타노의 가장 일관적인 이론으로 간주하고 싶다. 이 첫번째 해석에 의하면 유사 명증적인 개념적 감정 작용의 경험을 가치 인식의 ‘원천(Quelle)’으로서 혹은 그 ‘근거(Grund)’로서 간주할 수 있으나 감정 작용 자체를 통한 가치 인식의 ‘동기지어짐(Motivierung)’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 개념을 통한 매개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목되지 않기 때문이다.

51) L.v.r.U., 168쪽 참조.

52) U.s.E., 152쪽 참조.

이제 「윤리학의 정초와 설립(G.u.A.d.E.)」이라는 저작 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해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음의 장소를 살펴 보기로 하자.

- “1) 내가 나의 좋아함과 선호를 올바른 것으로 인식한다면,
- 2) 어떤 사람이 반대되는 작용을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는 일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3) 감정의 대립적인 작용 방식 가운데 단 하나만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⁵³⁾

우리가 위의 세째 문제를 둘째 문제의 전제로 본다면, 우리는 브렌타노가 사실적으로 추론 풀이를 적어도 가설로서 시험해 보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째 문제를 둘째 문제를 통해 제약된 문제로, 즉 둘째 문제를 일반화하여 정식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인용 중의 첫째 문제는 이차적 의식이라는 의미의 내부 지각에 의해 동기지어져 있다. 일차적 의식과 이차적 의식은 하나의 궁극 통일적 작용 안에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 있어 첫째 문제는 감정 작용에 의해 동기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첫째 문제는 사실적이고 둘째 문제는 필증적이다. 브렌타노는 이 경우 제약 관계(Bedingungsverhältnis)를 말한다.

“... 사실적 인식에 또한 공리적 인식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인식이 또 한 차례 증가된 것을, 다른 인식에 의해 제약되어 나타나는 인식을 통해 증가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 내가 한 규정이 다른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한다면, 이 후자의 규정이 속하는 것이 전자의 규정을 결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나는 또한 인식한다. 아주 명시적으로 이 인식은 양 규정 중 그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⁵⁴⁾

이 제약 관계는 브렌타노에 의하면 무조건적으로 염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동기 관계로 파악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브렌타노는 公理는 “개념으로부터 (ex terminis) 명증적인 판단” 혹은 “모순율의 성격을 갖는 필증적이고 아프리오리한 인식”⁵⁵⁾이라고 항상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리의 경우에 있어 개념을 통한 동기지어짐이라는 점이 분명해 진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적인 판단과 필증적인 인식 사이에는 ‘개념을 통한 동기지어짐’이라는 매개가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유사 명증적 감정을 통한 가치 판단의 동기지어짐을 - 이러한 표현이 경우에 따라 사용될 경우 - 염밀한 의

⁵³⁾ G.u.A.d.E., 149쪽.(번호 매김은 글쓴이가 함) G.u.A.d.E.의 불투명한 편집 원리 때문에 이 인용 부분이 편자가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삽입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⁵⁴⁾ P.III, 9쪽. (밑줄 치기는 글쓴이가 함)

⁵⁵⁾ P.III, 32쪽.

미의 간접적 동기지어짐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 연관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바탕놓음 연관, 정초 연관이라는 의미에서 감정을 통한 가치판단의 간접적 동기지어짐을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로써 글쓴이는 개념 풀이의 관점에서 추론 풀이와 감정 풀이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글쓴이는 카트코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때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점을, 즉 그것을 향한 그 자체에 있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이 좋아함이 아닌 다른 작용일 수 없다는 점을 알아채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자신 안에 이러한 좋아함을 발견해야 할 필요는 없다.”⁵⁶⁾ 그러나 A의 좋아할 만한 가치있음이 A와 연관된 유사 명중적 감정을 한번도 경험함이 없이 가능하다고 그가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지나침을 발견한다. 우리는 여기서 카트코프와 브렌타노 사이의 상이성을 확인한다.

이 네번째 마당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치 판단을 순수 인지적 필증적 판단과 비교하고 가치 판단의 필증성의 여러 가능한 해석 방식들을 설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세번째 마당에서 물려받은 문제, 즉 개념적 대상의 사실적인 좋아함이 그 대상의 좋아할 만한 가치있음에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적인 좋아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과 개념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것을 동기지어지지 않은 체 좋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좋아함이 개념적이 아닌 감각적인 대상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적인 좋아함은 그 외연에 있어 맹목적인(어두운) 그리고 또한 유사 명중적인 좋아함을 모두 포괄한다. 또 사실적인 좋아함은 감각적이고 촉발적인 좋아함 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좋아함도 포괄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좋아함은 의심의 여지없이 의식된 실제적인 심리적 상태이다. 비록 우리가 “나는 더 좋은것을 알고 있고 시인하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른다 (*Scio meliora proboque, deteriora sequor*)”는 격언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적인 좋아함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 사이의 갈등의 경우를 인정하는 것 같더라도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은 항상 사실적인 좋아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되는 갈등의 경우는 다음 두 경우로 여겨질 수 있다. 1)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은 좋아함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좋아함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의 경우이거나 혹은 2) 사실적인 좋아함과 유사 명중적 좋아함에 연관된 가치판단 사이의, 더 정확히 말해 가치 판단 안에서 간접적으로 (*in modo obliquo*) 생각된 좋아함 사이의 간접적 갈등의 경우로. 브렌타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립된 감정이 동일한 대상에 관계할 수 있지만,⁵⁷⁾ 위의 격언의 경우에 있어서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한편으로 사실적

⁵⁶⁾ Katkov, G., 위의 책, 20쪽.

⁵⁷⁾ Brentano, F., *Religion und Philosophie*. Hrsg. v. F. Mayer-Hillebrand, Bern 1954. 175쪽 참조. “고통에 대해 연구하려는 자의 경우처럼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고통을 좋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정하나 명중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선택이나 의지만이 동시적인 그리고 대립적인 의욕함 옆에 있을 수 없다.”

위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브렌타노가 동일한 대상에 연관적인 동시적이고 대립적인 감정 작용이 가

감정과 다른 한편으로 가치 인식에서 제안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그러나 여전히-아직-非-사실적인 (immer-noch-nicht-tatsächlich) 감정 사이의 갈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글쓴이의 해석의 근거는 가치 인식이 성립할 때 유사 명증적 사실적 감정이 반드시 동시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가설을 부정함에 놓여 있다.

5. 브렌타노 가치론의 일반적인 특성들

여태까지 우리는 브렌타노의 감정 이론을 가치 경험의 입장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이제 맷는 말을 대신하여 요약적으로 그의 가치론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해 보자.

우선 우리는 그의 가치론에 있어서 明證立場 (Evidenzstandpunkt)을 들추어낼 수 있다. 명증 입장 위에서 그는 전통적인 一致說/符合說 (Adäquationslehre)과 결별하는데 판단의 영역에서 사실과 지성의 일치 (adaequatio rei et intellectus)를, 감정의 영역에서 사실과 사랑의 일치 (adaequatio rei et amoris)를 주장하는 일치설/부합설은 그의 전기 이론이기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올바르게 이해된 일치설은 무한 소급을 피하기 위해 명증설로 환원되어 져야 한다. 올바름의 기준에 있어 이제는 일차적으로 의식과 사태 (Sachverhalt) 혹은 가치태 (Wertverhalt)의 일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심리적 작용이 문제이다. 이리하여 ‘좋은’, ‘나쁜’ 등의 술어는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등의 似而非述語와 마찬가지로 엄밀한 의미의 술어가 아니라 ‘外部로부터의 命名 (denominationes extrinseciae, 관계어 Relationstermini)’으로 밝혀진다. “우리는 어떤 것을 그것을 향한 좋아함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좋다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것을 향한 인정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명증적일 때 그 대상을 존재한다고 부르는 것과 유비적으로.”⁵⁸⁾ “인식은 좋다”는 판단에서 인식에 대한 (즉 인식하는 자에 대한) 판단이 직접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해 인식하는 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사 명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나 좋아함이 아닌 방식으로 입장을 취하는 자에 대한 필증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 직접 표현된다. 인식하는 자는 이때 단지 간접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증입장은 브렌타노에 의하면 主觀主義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가치 인식을 포함한 모든 인식의 보편 타당성이야말로 그가 명증론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이다.⁵⁹⁾ 가치 인식의 보편 타당성은 브렌타노에 따르면 올바른 가치 경험과 올바르지 않은

능하다고 보았는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인용된 고통의 예에 관해서는 일면에 있어 이차적 의식이 타면에 있어 일차적 의식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아 챌 수 있다. 일차적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동시적이고 대립적인 감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짐작컨대 브렌타노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동시적이고 대립적인 감정의 가능성은 단지 ‘어느 정도의 抽象’ 안에서만 인정되어 질 수 있다.

⁵⁸⁾ G.u.A.d.E., 146쪽 이하. 이 부분은 이미 둘째 마당 끝 부분에 인용됨.

⁵⁹⁾ U.s.E., 9쪽 참조. 브렌타노는 ‘윤리적임과 올바름에 대한 자연적인 정당화 (Sanktion)’를 말한다.

가치 경험의 구별을, 따라서 유사 명증적인 그리고 유사 명증적이 아닌 가치 경험 사이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心理學主義(Psychologismus)**가 판단의 영역에서 “그냥(단순한) ‘참된’과 ‘거짓된’ 및 그냥(단순한) ‘있는’과 ‘없는’을 ‘우리 종에 대해 참된’, ‘우리 종에 대해 거짓된’ 및 ‘우리 종에 대해 있는’과 ‘우리 종에 대해 없는’이 되어버리게 하는”⁶⁰⁾ 이론으로 이해된다면 브렌타노를 ‘심리학주의’ - 판단의 영역에서건, 감정의 영역에서건 - 라고 비난하는 일은 근거없는 일이다.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감정의 인식의 보편 타당성을 그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의 인간에 대한, 아니 사유하고 느끼는 모든 종류의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⁶¹⁾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적어도 브렌타노가 이해하는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짐’은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확실성과, 인간이라는 종의 자연 법칙성(Naturgesetzlichkeit)과 구별된다. 그는 명증을 明證感情(Evidenzgefühl)이 아니라고, 즉 강요의 느낌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짐’을 단지 주관적인 개인적인 확실성과도 구별한다. 물론 다른 의미의 심리학주의는, 즉 경험적 입장에 선 기술 심리학이 모든 학문의 바탕 학문의 정초를 위한 불가결한 바탕 학문이다라는 궁정적 의미의 심리학주의는 이 논문의 「들어가는 말」에서 밝혔듯이 브렌타노의 일관적 생각이다.

감정론에 있어 우리는 브렌타노와 함께 세 가지 극단론을 피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사실적인 마음에 들판과 들판지 않음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윤리적 프로타고라스주의, 둘째 현대의 이모우티비즘처럼 감정 영역에서 올바름 일반을 추방하는 이론, 세째 가치의 보편 타당성을 건지기 위해 ‘영원한 가치의 왕국’을 인정하는 新플라톤주의. 브렌타노의 가치론은 이 극단론들이 권리를 가지는 점을 통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²⁾ 그의 가치론은 우리가 어떻게 주관적이지만 유사 명증적인 가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허구적인 가치 왕국을 설립할 없이 가치 경험의 보편 타당성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와 대립되는 **客觀主義**을 브렌타노 가치론의 두번째 특징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세째로 그의 가치론은 經驗主義的이기도 하며 아프리오리주의적(合理主義的)이기도 하다.⁶³⁾

그는 다음과 같이 물음을 던진다: “... 모든 교회적인, 정치적인 도대체 모든 사회적인 권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연 자체를 통해 가르쳐 지는 윤리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 본성상 보편 타당하고 변경 불가능하여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의 인간에 대해, 아니 사유하고 느끼는 모든 종류의 존재자에 대해 타당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연적인 윤리 법칙이 존재하는가? 그러한 법칙의 인식이 우리의 심리적 능력의 영역 안에 있는가?” ‘adaequatio rei et amoris’ 이론이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장점을, 즉 가장 객관적인 가치태의 도움으로 가치 인식의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을 허구적인 것으로 까발리는 일이 그의 가치론의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이다.

60) V.ü.d.E., 195쪽.

61) U.s.E., 9쪽.

62) U.s.E., XII쪽(Kraus 의 들어가는 말) 참조.

63) U.s.E., 111쪽 이하 참조. G.u.A.d.E., 151쪽 참조.

그의 가치론은 가치 경험의 유사 명증성 및 그와 얹혀있는 가치 판단의 필증성에, 환연하면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과 가치 인식의 절대적 확실성에 큰 비중을 둔다는 의미에서 一面 아프리오리주의적이다. 他面 바탕에 놓여있는 가치 연루적 개념은 모두 내부 경험으로부터 얻어져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가치론은 경험주의적인데 이는 그의 일반적인 概念經驗主義(Begriffsempirismus), 즉 모든 개념은 내적 및 외적인 경험으로부터 추상과 동일화(Identifikation)를 통해 얻어지며 태고난 아프리오리한 개념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개념 경험주의의 일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감정 작용을 제시해 주는 탁월한 경험을 例示한다. 1) 인식을 좋아함, 2) 기쁨을 좋아함, 3) 올바른 고차원의 감정 작용을 좋아함 그리고 4) 표상을 좋아함이 그 예이다.⁶⁴⁾ 이와 반대로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본능적 충동 그리고 소유욕 같은 습관적인 충동은 맹목적이고 따라서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지 않다.

네째로 브렌타노의 가치론은 内在的(intrinsisch)이다. 그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일 차적 가치, 즉 그 자체에 있어 좋은 것이지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는 그의 연구 방법, 즉 고립화(Isolierung)와 분석(Analyse)의 원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우선 우리는 요소 부분들을 발견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의 결합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우리는 방법적으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자체 가치있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가치있는 것인데 브렌타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심리적인 마음의 재화만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그 자체 좋은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작용에서 발견한다. 모든 표상이 그것이고, 판단의 영역에서는 인식이 그것이며, 감정의 영역에서는 정당화된(gerechtfertigt) 좋아함과 좋은 것을 기뻐함

⁶⁴⁾ U.s.E., 22쪽 이하, 151쪽 이하 참조. 1)은 판단에, 4)는 표상에 관계하고 나머지는 감정에 관계한다. 이 네 개의 예들은 은연중에 선호 인식과 관계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여기 예컨데 인식-오류, 기쁨-슬픔의 대립이 항상 존립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유사 명증적인 단순한 감정을 유사 명증적인 선호 작용으로 환원시키려 한다면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브렌타노는 유사 명증적인 단순한 감정을 선호 작용의 바탕에 놓기 때문이다. 2)와 3)은 감정 작용의 각각 다른 슬어 계열을 지시함으로써 서로 서로 보완한다. 2)는 긍정적 감정의 좋음을 드러낸다. 3) 때문에 또한 ‘좋은’ 미워함이 있게 된다. 이와 연루된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다음과 주의 시킨다. “어떤 감정작용이 자체에 있어 순수하게 좋은 것으로 불리워 지기 위해서는 1. 그것이 올바른 것이며, 2. 그것이 싫어하는 작용이 아니라 좋아하는 작용이어야 한다.”(U.s.E., 81쪽) 주목할 만한 일은 브렌타노가 표상을 정신 생활의 확장으로서 그 자체 순수하게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점이다. 단지 우리 의식의 협소함 (Enge des Bewußtseins) 때문에, 즉 유용성의 입장에서 한 표상이 다른 표상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배제될 수 있다. 브렌타노는 나중에 「사랑함과 미워함에 관해서」라는 논문의 한 곳에서 (U.s.E., 152쪽) 올바른 갚음(應報)을 위의 예에 참가시킨다. 하지만 응보는 bonum retributionis로서, 選好의 원리로서, 이른바 유기적 통일체의 원리로 나타나므로 글쓴이는 이 본문 안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그것이다.”⁶⁵⁾ 각각의 마음의 영역에 있어 이상적이고 완전한 가치가 아름다운 것(美), 참된 것(眞) 그리고 좋은 것(善)이다.⁶⁶⁾ 이 밖에 물리적인 것, 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의 어쩌면 가질 수도 있는 내재적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다.⁶⁷⁾ 특히 물리적인 것은 그와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Wertneutrales), 무차별적인 것(Indifferentes)으로 통용된다.

제일차적 가치라는 내재적 특성은 사물의 가치가 그 사물의 어떤 내재적인 실제적인 특징, 즉 그것의 어떤 한 속성이라는 추측을 낳아서는 안된다. 한 사물의 가치는 노랑-임(Gelb-Sein)이라는 단순한 감각적 성질과 비교되는 그 사물의 어떤 한 실제적 특징인 것은 아니다. 염밀히 말해서 가치 술어는 그 가치 술어의 주어로 생각된 사물을 직접 記述하지 않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좋은’, ‘나쁜’, ‘더 좋은’ 등의 모든 가치 술어는 밖으로부터의 命名(denominationes extrinsecae)이다. (하지만 그것은 밖으로부터만의 명명(denominationes mere extrinsecae)은 아니다. 가치있는 것은 물론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로써 미워할 만한 것과 구별되기 위해 어떤 실제적인 규정들을 가져야 한다.”⁶⁸⁾) 이러한 연관에서 다섯째로 브렌타노의 가치론은 레이스무스적(個別存在者主義的)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이스무스(Reismus)는 오직 개별적 존재자만이 사유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속성/특성을 지닌 존재자만이 사유될 수 있다는 근본 생

65) G.u.A.d.E., 209쪽.

66) Chisholm, R.M., 위의 책, 4쪽 참조. 제일차적 가치의 다수성 때문에 Chisholm은 브렌타노의 가치론을 단일 가치를 주장하는 폐락주의와 대비적으로 ‘다원주의적(pluralistic)’이라고 본다.

67) G.u.A.d.E., 206쪽 이하 참조.

68) K., 380쪽(Kastil의 주석). 브렌타노는 ‘좋은’이라는 말의 다의성(Äquivokation)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다의성의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예컨데 ‘좋은’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변양시키며 술어로 서 있다.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은 채 올바르게 좋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좋은’이라는 말이 술어로 놓여 있을 때 그 말로써 주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바의 어떤 속성들을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표현된다.”(K., 253쪽)

Kraus, O., 위의 책 54쪽 참조. “비록 우리가 ‘좋은’, ‘나쁜’, ‘더 좋은’ 등의 문법적 술어를 denominationes extrinsecae라고 말했지만 대상의 내재적 성질 intrinseca qualitas(많은 사람들은 이 경우 ‘질료 Materie’라 일컫는다)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은 ... 인정되어야 한다.”

‘범주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인용해 보자. (K., 366쪽. Kastil의 주석)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할 때에도 밖으로부터의 명명(denominatio extrinseca)이 문제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 사물의 술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그가 올바르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지 그가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으로 좋아한다고 말해질 경우에만 한 실제적인 술어가 주어진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올바르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는 맹목적인 하지만 참된 판단의 경우처럼 하나의 밖으로부터의 명명(denominatio extrinseca)이다.”

각에서 출발하는 입장으로서 - 이러한 입장은 그의 철학적 방법의 하나인 언어 비판을 통해 강화되는데 - "(문법상의 주어로 나타나는, 박찬영 풀이) 당해의 개별 존재자(Reales, Ding)에 대한 술어 붙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언표에서 판단의 본래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을 찾아 나설 것을 명령하는"⁶⁹⁾ 일반적인 인식 존재론적 입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경우 가치 술어는 겉보기와는 달리 당해의 것을 올바른 것으로 특징지어진 사랑으로 좋아하는 자의 한 실제적 술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69) Katkov, G., 위의 책, 147쪽.